

NEWS LETTER

2022년 01월 10일 Vol. 430

비뇨의학과 김형석 교수, 비타민 D와 발기부전 연관성 연구성과 발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비뇨의학과 김형석 교수(주저자)가 최근 하부요로 증상을 호소하는 고령의 남성 환자에서 비타민 D와 발기부전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The World Journal of Men's Health (impact factor: 5.4))에 발표했다.

비뇨의학과 김형석 교수는 하부요로 증상(요실금, 야간 배뇨, 잔뇨 등)으로 내원한 약 530명의 남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타민 D와 발기부전과의 관련성을 조사했다.

김형석 교수는 “그동안 하부요로 증상과 발기부전을 동반하는 남성 환자에서 비타민 D의 임상적인 의미에 대한 정확한 국내 보고는 없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배뇨 장애를 호소하는 고령의 환자에서 나타나는 발기부전 증상은 비타민 D 부족과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추후 이러한 환자들에서 비타민 D 보충이 발기력 개선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기경련치료’ 시술 5000회 돌파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최근 우울증과 관련해 약물 치료보다 효과적이며,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치료법인 ‘전기경련치료’ 시술이 5000회를 돌파했다.

전기경련치료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매우 활발히 시술되고 있다. 주로 우울증 환자에서 많이 사용되며 특히 노인의 경우 약물치료보다 더 안전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다.

우울증에 대한 약물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2주~3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전기경련치료의 경우 2주~3주 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 효과면에서도 신속하고 빠른 치료법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윤탁 교수는 “전기경련치료는 정신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치료법이다”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경우 전국 평균 1/5정도 수준의 많은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발전기금 1천만 원 전달

(사)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지난 12월 23일 동국대학교 법인이사장실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동국대학교이사장 성우스님, 건학위원회최고위원장 돈관스님, 전, 동국대학교이사장 법산스님이 함께했다.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 스님은 “자비와 나눔의료를 실천하는 병불련에 감사드리며,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의 마음을 받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전국병원불자연합회 류재환 회장은 “약사도량 동국대학교병원이 종단병원으로서 더욱 성장해나가기를 발원하는 마음으로 기부금 전달하게 됐다”며 “코로나 펜데믹이 진정되면 동국대학교병원과 병원불자연합회가 함께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의료포교를 실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부작품소개

불교 크리에이터 장정운 일러스트 작가, 불교애니 작품 소개



작품명(3편) : Happy pensiveday(2018)

작품소개

반가사유상은 영문으로 “Bodhisattva in pensive position” 또는 “Pensive Bodhisattva”라고 표현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은 미소를 짓고 있어 온화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수심(사색)에 잠긴 모습이라는 뜻이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가사유상의 사색은 곧 중생 구제를 고민하는 것이라,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양초처럼 표현했고 배경은 아름다운 꽃밭으로 그려내 즐거운 사색 날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